



# 특화제품 생산 성장기틀 마련

부품하나에도 정성다해

## 개발제품 이미지업

슬리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보광기계는 시작한지 5년밖에 되지않았다.

짧은 연륜이라 하겠지만 김동수 사장은 슬리터 제작경력 17년이나 되는 베테랑으로 기술면에서는 내노라 하는 장인이다.

슬리터, 라미네이터 등 필름, 종이의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만을 고집,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지난 91년에 창업된 보광기계는 'TDW-7' 이라는 슬리터를 자체 개발해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한솔, 신도리코 등 우수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슬리터의 90%정도가 이 회사 제품인 것만 보아도 제품의 성능을 짐작하게 해준다.

종이가공, 특히 FAX감열지를 컷팅하는 슬리터는 작업 끝부분의 END마크가 고기능을 요구하는데 보광기계는 경도를 맞추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최적의 경도를 산출, 자사 제품에 적용하여 업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력도 있었지만 김 사장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김 사장은 창업초기 2명의 직원과 함께 1인 다역을 하면서 교통비도 되지않는 부품을 정성껏 납품하는 등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제 자체 공장도 보유하고 식구도 10명으로 늘어난 결실을 맺기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한 보광기계는 신제품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재 보급된 제품들의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한 기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광기계는 수요업체와 기계에 대한 논의를 자주해 수요업체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데이터화해 종합적으로 최상의 기계를 만들기에 열심이다.

슬리터기의 경우 비슷비슷한 특성이 있지만 보광기계는 다른 회사와는 다른 특수기종을 선보여 공감을 얻고 있다.

'항상 진실되게하자'는 신념으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슬리터기 제작업체로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과제라 생각하는 김 사장은 노력을 다한후 결과를 기다리는, 철저하게 순리를 따른다.

제조업체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납기준수와 제품의 질이다. 보광기계는 정성을 다한 기계를 납기 이전에 납품하여 가동케 하는 그들만의 철칙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약속된 것은 정확히 지킨다는 김 사장의 생활신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내부적인 문제가 자금과 인력난인데 자금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다.

초창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모있는 운용으로 문제가 없다. 인력도 시작 때부터 조금씩 보강된 인원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안정돼 있다.

### 납기단축 질향상

여기에는 김 사장의 남다른 관리가 뒤따랐다. 다른 업체에 뒤지지 않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익금이 나면 즉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김 사장이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욕심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여타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회사가 규모있게 되고 여유가 있을때 잘해 주겠다는 일반적인 틀을 깨고 공동체란 인식을 위해서도 즐거움과 슬픔을 항상 같이한다는 의지가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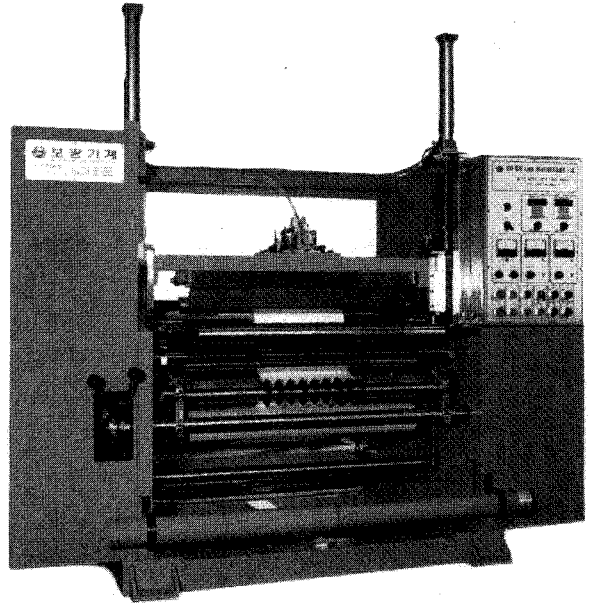
회사 규모가 작은 관계로 충분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분위기만큼은 최고로 만들려 노력하는 등 직장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직원들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이것이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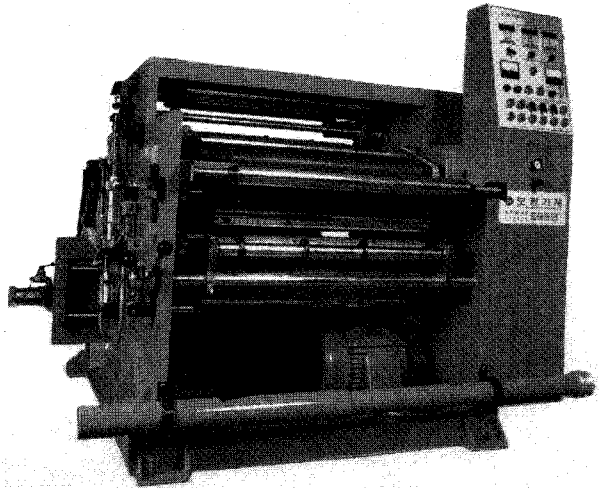
김 사장은 또하나의 욕심을 버렸다. 그의 나이 50이 넘으면 업체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기술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경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동고동락한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배려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 사장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



▲ TDW 601



▲ TDW 701

는 업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보광기계는 대외적으로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력은 구전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후발주자로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기술에 있어 선두주자가 될 때 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잘 만드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수년 전 기술을 답습해 기계를 알고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슬리터는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김 사장은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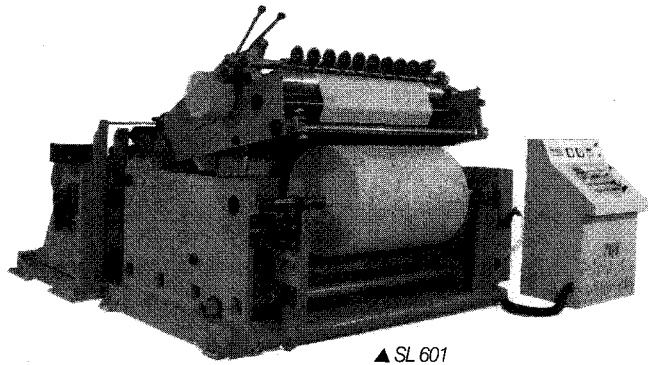
그저 수주만 받아 기술개발없이 납품하다보니 뒤처지는 현실에 제살 깎기 경쟁이 심해 곧은 길을 가고 있는 업체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업계의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슬리터기계 제작업체는 인원이 10명선이 적당합니다. 자동화된 기계들을 이용하고 최정예 인원만 가동한다면 어떤 작업도 무리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 사장은 인건비가 비싸고 인력난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 국내 실정을 이렇게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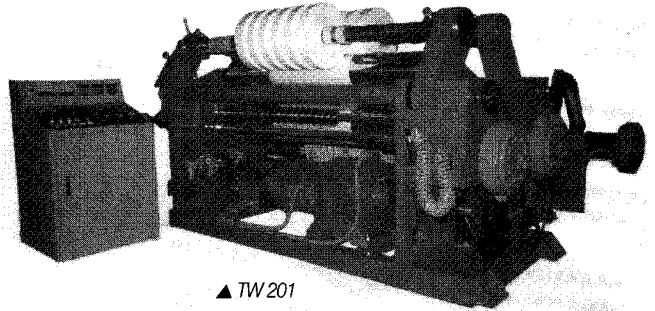
김 사장은 “수요업체들이 국산기계와 외산기계를 놓고 똑같은 하자가 나오더라도 외제는 그럴수 있다고 관대한 반면 국산은 국산이니까 그렇다라는 식으로 국산을 비하하는 자세는 이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기가 발동한 김 사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기계를 제작하는데 나서 이제 90%정도 목표에 도달했다.

“전기콘트롤, 클러치, 디자인 등 일부만 따라잡으면 외산보다 앞선 기계를 선보일수 있다”고 자신하는 김 사장은 “우리나라는 주문에 의한 단품생산 위주이고 선진국은 대량생산체제로 다양한 변화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점에서 극복하기 힘든 벽이 있다”고 토로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 말했다.



▲ SL 601



▲ TW 201

### 국산개발에 오기발동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유시간과 가정일에 충실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김 사장은 고민과 갈등이 심했지만 부인의 내조가 없었다면 좌절 또는 안정케도에 오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 밝히고 앞으로는 가정과 직장 모두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계획이다.

50세까지만 회사일에 전념하겠다는 이유가 가정적인 생활에 치중, 가족을 위한 시간 할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생가이 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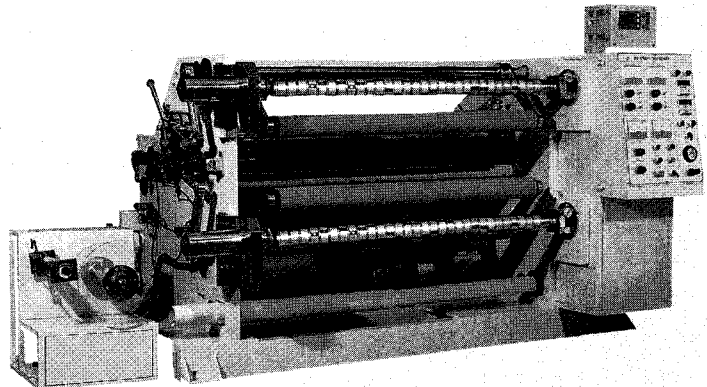
스스로 해결하라는 신조로 책임감을 강조하는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도 앞장서고 있다.

보광기계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 보다 20% 성장하는 것이다. 아직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수십, 수백억 단위는 아니지만 착실히 성장하면 이 수치도 달성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징조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수출을 비롯하여 동남아에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30%인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내수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보광기계가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TDW 601은 감열지, 백상지, 타자용지, 계산기 테이프지, 텔레타이프용지 및 각종 종이류를 좁은 폭으로 자르고 동시에 와인딩하는 고속 슬리팅기계로 롤러에 도역을 전달하고 롤러의 양쪽 접촉면에서 리와인딩되며, 상부에 터치롤러를 부착하여 매 감속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


터치롤러에는 파우더클러치와 에어 압력조정기를 부착하여 회전에 의한 장력조절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감열지 슬리팅시 원하는 면에서 END MARKING을 할 수 있게 인쇄롤러가 부착되어 있다.



▲ BK102

그밖에 TDW 701, SL 601, TW 201, BK 101 등 보광만의 특징을 살린 기계를 제작하여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보광은 수주, 생산, 서비스에서 제품 품질보증까지 완벽을 기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기하고 다양한 제품개발로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다.

보광은 고객만족, 품질제일의 이념으로 최고의 기술진과 첨단설비로 최고의 슬리터 개발에 박차를 기해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오선진 기자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의 대변자로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정보, 업계소식, 신제품 안내, 문화 등 포장인의 필독서로 자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인의 참여와 관심, 채찍이 월간 「포장계」를 살찌우고 나아가 포장산업을 풍성하게 하는 매체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포장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